

나성 세계로 교회 LA Global Mission Church
일과 영성 Every Good Endeavor
2020 02 07



Just Show up (팀켈러의 일과 영성) 모임 후기

Just show up모임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성경공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새 책을 한 권 받아 들고 보니 기대감이 많이 생겼다.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동안은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서로 나누다 보니 세상일도 하나님의 일도 사실은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생각하던 일의 개념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의 일터를 주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다.

책을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은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다른 묵상이 나오고, 다른 적용점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는 시간들이었다. 그 동안에 성경 공부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느낌이 조금 들었지만, Just show up모임은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더해주는 시간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면 좋겠다.